

“불교문화 선양이 불교의 살 길”

용운 스님, 초의문화사업단 출범으로 차 문화 저변 확대 나서

“불교문화를 알리는 길이 앞으로 불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녹차시장은 2150억원 정도의 규모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차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웰빙’ 트렌드와 함께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요즘, 용운 스님(초의학술문화원장·사진)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정신을 이어 ‘초의’ 브랜드 화를 통해 차 문화 저변확대에 나서고 있다.

스님은 1998년부터 무안군과 함께 초의 선사 탄생지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초의 선사의 선(禪) 사상과 차(茶)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발원했던 용운 스님은 현재 전남 무안에 대좌불사를 진행 중이다.

스님은 앞으로 대규모 초의 선사 탄생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테마의 시설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복원 중인 초의 탄생지는 무안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초의 선사 탄생지는 언제든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고즈넉한 운치가 돋보이는 이곳에서는 다양한 차 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초의 선사의 차 정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실존과 거의 흡사한 일지암과 초의 선사의 작품들이 건물 전체에 조각돼 있는 초의선원 등은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어울려 더욱 눈길을 모은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문화를 통해 접근하

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초의 선사 탄생지인 일지암(무안)은 ‘차’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최적지입니다. 대승적 회향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동은 반드시 필요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안을 차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문화원의 목표입니다.”

용운 스님은 “불교문화는 한국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불교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화자산을 갖고 있다”며 “차 문화를 시작으로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운 스님은 초의학술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이하 초의문화사업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초의문화사업단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다성 초의 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판매수익금은 다시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환원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스님은 “초의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차를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다. 차 한잔을 마시면서 여러 불우이웃들과 함께 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향기로운 차를 통해 세상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실천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전남 무안의 초의 선사 탄생지에서는 다양한 제다 실습 체험과 다도체험 및 초의 차 무료시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061) 285-0301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이동건·성운 스님 등 만해대상

14회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시상식은 8월 12일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조계종 총무원장)가 제14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성운 스님



이동건



김학성

수상자로는 평화부문에 이동건(前 국제로타리클럽 회장), 실천 부문에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문학부문에 존 램스톤 소울(국



정진규



존 단칸



존 램스톤 소울

제 펜클럽 회장)과 정진규(현대사학 주간), 학술 부문에 존 단칸(미국 UCLA 교수)과 김학성(성균관대 교수)이 각각 선정됐다.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건 前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2008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실천부문 수상자 성운 스님은 자비실천이 곧 수행이고 포교라는 신념과 원력으로 30여 년간 노인, 어린이, 장애인, 군인, 노숙자, 재소자 등을 위해 복지포교에 헌신해 왔다.

문학부문 수상자 존 램스톤 소울은 세계 22개국어로 30개국에 작품이 번역된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이다. <타인>은 그를 “예언자”라고 칭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대

중공수상한 정진규 시인은 한국현대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진규 시인은 순수시를 지향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

들의 동인인 <현대시> 동인으로, 자아와 자연탐구를 근본으로 하는 몸과 자연의 생명력에 천착해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시사(詩史)에 일익을 담당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존 단칸 박사는 미국화계에서 한국학 연구에 발군의 업적을 쌓은 연구자이다.

공공수상한 김학성 교수는 국문학의 정수인 고전시가의 미학과 정제성 구명을 통해 국문학의 생산적 가치 발견이라는 심원한 문화연구의 지평을 선도적으로 열었다.

만해대상은 만해스님의 생평사랑과 평화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은정 기자

초의 ‘다신전’ ‘동다송’ 번역해 그림과 함께...

김창배 화백 ‘선묵화 세계’展 16일까지 한국미술관서

선(禪)과 차(茶)를 접목한 독특한 선묵화들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선묵화의 세계’ 전을 연다.

김창배 화백은 선묵화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해, 인물화의 목보적인 맥을 잇고 있는 작가이다. 김 화백의 작품은 고요한 선묵화와 함께 전통적인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풍경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김 화백이 직접 초의 선사의 <다신전>과 <동다송>을 새롭게 번역해, 이를 토대로 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한국 미술을 우리 차와 접목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 김 화백은 작품준비만 꼬박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작품은 차를 마시는 다동과, 다인, 차회 등의

모습과 차 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어 관람자의 즐거움을 더한다.

김창배 화백은 “이번 전시가 맥이 끊겼던 선묵화를 알리고,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시가 불교포교와 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여 점의 선묵화가 선보여지는 이번 전시는 3월 16일까지다. (02)720-1161

이은정 기자



김창배 화백(위)과 그의 작품 차차리.

신진환씨 30년 만의 첫 개인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인 신진환(사진)씨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연다. ‘가람 안팎전’이란 제목의 이번 전시는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3월 16일까지 열린다.

가람 안팎전은 전각 안의 불화와 전각 밖에 그려지는 벽화를 통해 불도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절에 들어가 단청을 배웠다. 그러다 스승인 임석환 선생을 만나 불화가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한 길만 오로지 걸어온 신진환씨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불화의 전통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씨의 이번 전시에는 국내 최대 크기의 가람탱과 후불화, 나한도 등 10여 점을 비롯해 단청을 주제로 한 머리초와 반, 금문 등 5점, 벽화 20여 점 등 모두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통해 후학들과 불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신진환씨, 그런 신진환씨의 소박한 마음과 부처님 법음이 전해지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02)733-4448

이은정 기자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